

**브라질, 2010년 경제성장률(GDP)  
5%대 성장 전망**

- 2010년도 브라질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브라질의 2010년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은 5%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
  - 국제통화기금(IMF)은 2010년도 브라질이 약 5.8%의 GDP 성장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고 브라질 중앙은행은 브라질의 GDP가 5.1% 성장할 것으로 전망
  - 다만, 올해 10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 다소 불안해질 수 있고 브라질 중앙은행의 출구전략 시점에 우려감은 있으나,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속에 5%대의 경제성장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

<표 1> 2010년도 브라질 경제 전망

구 분	2008년	2009년*	2010년*	
			BC	EIU
소비자물가 상승률 (%)	5.9	4.29	4.50	4.5
환율(R\$/ US\$, 연말기준)	2.34	1.74	1.75	1.82
기준금리	13.75	8.75	11.00	-
GDP 성장률(%)	5.1	△0.26	5.2	4.8
무역수지(억 달러)	250	246	112	75.2
경상수지(억 달러)	△283	△200	△400	△412
FDI 유치액(억 달러)	451	250	375	-
외환보유액(억 달러)	2,245	2,596	-	2,768

\*자료: 브라질 중앙은행 및 EIU('09와 '10은 전망 및 추정치임)

- 2010년 브라질 기준금리 추이는 브라질 경제성장 속도에 좌우될 전망으로 적절한 인플레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년중 기준금리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

- 브라질의 금융계는 기준금리가 '10년 상반기부터 인상을 시작해 '10년 말 10.63%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

<표 2>

콜금리 추이

단위: %, 연말기준

연도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(*)	2010(*)
증감률	16.5	17.75	18.5	13.25	11.25	13.75	8.75	10.63

자료 : 브라질중앙은행(\*는 전망치)

- 2010년 물가상승률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회복에 따른 국내외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, 물가상승률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

- 대외적으로 중국 등의 경기회복에 따라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이 예상되고, 대내적으로도 생산 및 소비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이 예상
- 다만, 브라질 정부의 인플레이 수준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예상되고 헤알화 강세에 의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 등에 의해 정부 목표치인 4.5%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

<표 3>

물가 상승률(IPCA) 추이

단위: %

구분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(*)	2010(*)
물가상승률	9.3	7.6	5.69	3.1	4.5	5.9	4.31	4.4

자료: 브라질중앙은행(\*는 전망치)

- 2010년 달러 대비 브라질 헤알화 환율은 2009년 하반기부터 이어온 헤알화 강세현상이 지속될 전망

- 올 10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등에 따른 정국 불안 요인이 일시적인 달러화 강세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,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 및 '14년 월드컵 및 '16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등으로 외국 인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헤알화 환율은 지속적인 강세가 예상

<표 4>

환율 추이

단위: %, 연말기준

연도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
증감률	2.9	2.65	2.32	2.14	1.80	2.35	1.72

자료: 브라질중앙은행(달러표시 헤알화 환율)

- 2010년은 브라질 교역규모는 세계 경제 회복 및 브라질 경제의 플러스 성장 예상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무역흑자 규모는 2009년에 비해 큰 폭의 감소가 예상
  - 수출은 선진국들의 경제 회복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큰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, 브라질의 수입 수요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한 상황으로 2010년 무역 흑자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
  - 아울러 무역흑자 규모의 축소 및 브라질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배당 해외 송금이 늘어날 전망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 또한 더욱 늘어날 전망
  - 그러나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의 자본 및 금융 투자는 활발하여 외환보유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, 전반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브라질의 대외계정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

<사용파울루 사무소 제공>